

성경을 둘러싼 생각의 편린들

조택현 <<< 광주서남교회 담임목사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e), 즉 “오직 성경”을 외쳤을 때 그 명제의 대적점에는 “프리뮴 도그마”(Primum Dogma), “우선 교리”라고 하는 당시 교회의 대세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당시 교회의 지배적인 사고는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유일무이한 신앙적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인가? 오직 마틴 루터 한 사람만 차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게 될 개혁적 주제를 가슴속에 비장의 카드로 품고 있었다는 말인가? 물론 그건 아니었다. 마틴 루터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아니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전체적인 분위기였다. “솔라 스크립투라”보다 “프리뮴 도그마”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었고 그로 인하여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성경보다는 교리를 중요시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대세는 분위기나 힘의 주도적이고 커다란 흐름을 의미한다. 대세가 기울면 바로잡기 힘들다. 그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물리

학에서나 심리학에서나 통용되는 것이다. 세속적인 세계에서나 신앙적인 세계에서든 마찬가지로 대세는 그대로 적용된다.

대세는 또한 주변의 소소한 모든 것을 잡아끌어 당겨서 자기편으로 종속시키는 능력을 가진다. 마치 커다란 강줄기가 도도히 흘러가면서 강 주위에 있던 모든 것을 그 커다란 흐름 속으로 잡아넣는 것이 그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대세는 잘 만들어져야만 한다. 역사 속에서 대세가 잘못 만들어지면 한 시대가 그 잘못된 분위기 때문에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중세 종교재판 때 잘못 만들어진 영적 분위기가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국민을 얼마나 큰 고통과 좌절 속으로 몰아넣었던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을 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대세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표면상 이에 대한 답은 긍정적인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특히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과 척도가 그때그때 교회의 상황이 만들어 내는 이슈에 따라 휘둘릴 때가 많다. 여기에서 성경해석은 본문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근거하여 다루어지는 양상을 띤다. 성경이 시대적 이슈에 대하여 말씀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자가 그 이슈를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억지로 해석하려(eisgesis) 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그 이슈를 풀어내야 함(exegesis)은 너무나 당연한 터이다.

마틴 루터 때는 성경인가 교리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했다. 오늘날은 성경 해석이 문제이다.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문제는 과연 성경을 본문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상황에 휘둘러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미묘하다. 말씀에 근거하여 주장한다고 하는 이른바 아전인수격 논리가 다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 논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 하든지 또는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고 하는 주장에 의해 정당한(?) 힘을 얻을 때 그 파괴력은 이내 가공할 만한 것이 된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힘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상황에 의해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논리에 충실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고 최소한으로 줄여진 개인적 신앙양심에 의해 성경을 해석하는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에 의해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고 최대한으로 확대된 개인적 신앙양심에 의해 성경을 해석하는 객관적인 해석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배하도록 해야겠다는 바람이 그 어떤 힘보다 더 강력하게 꿈틀거려야 하리라.

우리에게 성경은 가장 객관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객관적인 계시의 객관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개인의 주관에 매여 있다. 단지 그 개인의 주관에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 아주 객관성을 떨 때에 성경의 객관성은 유지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진리이다. 우리가 하시라도,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도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나의 고집스런 마음으로 한다면 더욱 문제일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아직 깊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하게 주관적이고 고집스런 말씀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훼손하면서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변호하면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조택현 전북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 Th.D.)에서 공부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와 대진신학교 강사를 거쳐 현재 광주서남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특집- 성경에 나타난 치유와 회복

- 나 여호와와는 너희의 치료자 ≪ 김성수
-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 ≪ 조광호

상당 부분 경기가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한국사회는 여전히 미국발 경제한파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으며,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이다.
그러나 성경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
인간의 제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에 이번 호 특집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 하에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과제를 숙고하고자 한다.

- 편집자

